



www.topcit.or.kr



젊은 아이티어 ITier, **TOPCIT**을 만나다

TOPCIT이 ICT 전공자 여러분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nip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kpc 한국생산성본부
KOREA PRODUCTIVITY CENTER

TOPCIT이 궁금하다면?

TOPCIT은 미래창조과학부 주관하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생산성본부(KPC)가 국가 ICT산업의 진흥과 ICT우수인재육성 및 발굴을 위해 개발한 제도입니다.

*문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역량개발팀(TOPCIT Management Team)

대표번호 : 042-710-1395

- 03 젊은 아이티어ITier, 꿈을 품다
- 04 프롤로그
- 06 뽀뽀뽀뽀, ICT!
- 08 나와라, ICT 처방전!
- 10 TOPCIT이란?
- 12 Zoom in! TOPCIT 속으로~
- 14 TOPCIT 이러닝 소개
- 16 TOPCIT 11문 11답
- 18 에필로그



젊은 아이티어, ITier 꿈을 품다

스티브 잡스를 꿈꾸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꿈과 함께 자라서 ICT학과에 입학하였습니다.

이제 청년이 된 아이는 졸업 후 자신의 꿈을 펼칠 곳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청년이 꿈꾸었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대학 4년 동안 배운 ICT지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현장에서 쓸모가 있을까,’

‘취업을 하려면 ICT자격증을 따야하나. 아님 대학원에 가야하나?’

청년은 꿈꿈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ICT회사 사원의 깨알같은 조언들

여기, 부푼 꿈을 안고 취업에 성공한 ICT천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입사원으로 한 해 두 해 지내면서

자신에게 무언가 부족한 역량이 있음을 절감하게 되는데요,

바로 엔지니어로서 수행해야하는 ICT기술 역량에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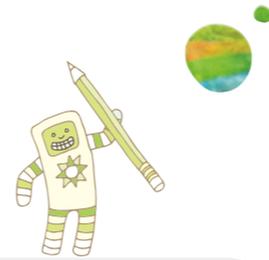
고객을 응대하고 프로젝트를 실행·관리하는 능력,

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이르기까지

갖추어야할 역량은 참 다양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그들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통해

졸업 후 머지않아 겪게 될 나의 미래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실무에서 문제를 해결하다보면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초과목에 충실하세요”

학교 다닐 때의 아쉬운 점을 꼽으라면 알고리즘, 데이터구조, 운영체제, 컴퓨터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기초 전공과목을 좀더 깊이있게 공부해두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 문제를 해결하다보면 결국 이런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실마리를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기초과목이 응용과목과는 달리 재미도 없고, 어떻게 활용될 지 막연한 느낌이 들기도 하겠지만 학생 때 이런 과목들을 충실히 이해해 놓는다면 현장에서 문제가 부딪혔을 때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학창시절에 팀단위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실패와 성공 여부를 떠나서 시행착오를 했던 경험들은 현업에서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임준표 (입사 3년차)



“고객사의 니즈를 파악하고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 관리능력이 중요해요”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친한 친구끼리 커뮤니케이션이라기보다는 수다 비슷하게 일을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회사에 들어와 보니까 전화나 메일, 회의 등을 통해 고객사와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 제일 중요 하더라구요.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제가 찾은 방법은 대화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거예요.

이렇게 근거자료를 통해 내용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면 한결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삼성SDS 윤소영 (입사 4년차)



“상대에게 내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워주세요”

학생 때는 보통 그 프로젝트에 제일 많이 참여한 사람이나 고생한 사람을 발표자로 뽑아주잖아요. 그러다 보니 발표를 하는 사람만 계속하게 되는데,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발표 기회를 많이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발표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 상대방에게 나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 업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일을 진행하다보면 고객사나 개발사의 의견이 대립될 때가 있는데 이 경우, 어느 한 곳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절충안을 찾아가는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는 그 간의 히스토리를 문서로 잘 정리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삼성SDS 손기석 (입사 2년차)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Fundamental’ 과목들을 튼튼히 하십시오”

제가 대학생활을 되돌아 볼 때 여러분께 딱 2가지만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대학교 커리큘럼을 수동적이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경계하세요. 대학교의 커리큘럼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삶을 살아 주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여러분만의 커리큘럼을 만들어보세요. 그것이야말로 진정 여러분의 피와 살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대학교는 산업현장에서 바로 쓰일 수 있는 인력을 생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기초 교양과 기초학문을 가르쳐서 어느 일 이던 간에 필요한 것을 단시간에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곳입니다. 대학교에서 배우는 ‘Fundamental’ 과목들을 튼튼히 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견고하고 빠른 길입니다.

네오위즈게임즈 박중은 (입사 2년차)



젊은 아이티어의 꿈을 구해주세요!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 ICT인재가 없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기업은 'ICT전공자를 채용해도 비전공자와 역량 차이가 별로 없다'며 울상이고

학생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 ICT환경에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할지 모르겠다'며 막막해합니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대학의 ICT 전공교육이 산업현장의 필요와 요구를 못 따라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과학기술과 ICT를 통한 '창조경제'가 사회 전반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우리나라 ICT인재양성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과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마침내 정부, 산업, 학계에서 차출된 1백여 명의 ICT 전문가들이 뭉쳐

젊은 아이티어의 꿈을 구하기 위한 처방전 찾기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윤덕용 포스텍 부이사장 “이공계, 인문·사회과학 녹인 ‘일반교육’ 강화해야”

“우리나라 이공계에도 이제 일반교육(General Education)이 필요합니다.” 윤덕용 포스텍 부이사장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2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 기조강연에서 “부실한 일반교육 문제가 이공계 대학뿐 아니라 모든 대학과 교육전반에 만연하다”며 “교육과 연구의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한국대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부이사장이 말한 일반교육은 인문학·예술·사회과학·수학·자연과학 등 교양학(Liberal Arts)분야가 균형 있게 자리 잡은 교육을 뜻한다. 서구에는 어릴 때부터 대학교육 과정까지 일반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높는데 비해 우리나라 이공계 교육은 인문학을 포함한 일반교육의 비중이 낮다는 것이 윤 부이사장 생각이다. 윤 부이사장은 “미국 이공계 대학에서는 일반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 학부 과정의 25%를 인문·예술·사회과학에 할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미국 이공계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윤 부이사장이 인용한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자료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과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altech)의 인문·사회·예술분야 학점 수는 전체의 25%, 22%다. 우리나라의 경우 포스텍 16%, 한국과학기술원(KAIST) 18%, 서울공대가 13%다. 교양담당 교수 비중도 MIT(16%), 캘리포니아 공과대학(17%)에 비해 포스텍(4.4%)과 KAIST(3.5%)가 낮았다. 윤 부이사장은 “MIT는 경제학·언어학·인지과학 분야는 세계 제일 수준이며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한 독특한 형태의 종합대학으로 발전했다”며 “우리나라 이공계 대학도 교육과 연구의 조화로움 발전방향을 모색해 부이사장은 논어 문구들

김병철 대신증권 IT 본부장 전무 “기술은 기본, ‘비즈니스 이해도’ 높여야

IT에 종사하고 있는 개발자, 전산직, 엔지니어들의 공통적 궁극적 목표는 ‘관리자로 성장하면서 어떤 커리어 패스를 가져야 하느냐’다. 30년간 IT에 종사해 온 김병철 대신증권 IT 본부장은 선배로서 “끊임없는 자기계발은 기본이고,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최근 물을 접목시켜 더 큰 하나를 창조할 수 있는 컨버전스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IT 전문성과 더불어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면 이를 접목시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을 거다”고 강조했다.

취재 | 조규희 기자 khcho@imaso.co.kr

“네 꿈을 펼쳐라!” 우등생이 우수 인재가 되지 못하는 이유 “기술은 기본, 커뮤니케이션 스킬 겸비해야”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구직자. 그러나 기업에선 뽑을만한 인재가 없다고 인력충원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IT 업계에 더 많이 나타난다. 이는 비단 구직자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IT 업계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됐다. 취업률이 낮아지고, 직업 만족도가 떨어지기 시작한 IT 관련 학과의 인기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결과 아닐까?

취재 | 김나영 기자 na0@imaso.co.kr





나와라, ICT 처방전!

젊은 아이티어에게 TOPCIT을 처방하다

스무 살 아이티어의 꿈을 구하기 위해 모인 각계의 ICT전문가들은 먼저 다음의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 첫째, 대학은 하루하루 변하고 있는데다 갈수록 방대해지고 있는 ICT산업 현장의 요구를 스피디하게 따라잡기 힘들다는 점,
- 둘째, 기업은 기업대로 개개인의 ICT역량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검증 기준이 없어 실제로 40개가 넘는 ICT자격증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ICT인력을 채용할 때마다 골머리를 앓는다는 점,
- 셋째, ICT전공자들조차 막상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할지 몰라 막막해하고 있다는 점...

문제점을 찾고 나니 처방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만약 대학이 기업에서 진짜로 필요한 인재를 길러낼 수 있고, 기업이 그 인재의 역량을 제대로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다면 ICT생태계는 스스로 자생하는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ICT전문가들은 마침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ICT역량 진단제도, TOPCIT을 처방하기로 하였습니다.

| 개발배경 |



| 개발목적 |

• TOPCIT은 산업계와 대학에서 공통으로 요구하는 'ICT전공 졸업생 역량' 진단·측정 제도를 개발하여 우수인재 육성 및 기업공급, 대학 ICT교육 질 제고 등 건전한 ICT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개발기관 |

• TOPCIT은 ICT전공자의 실무능력 진단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생산성본부(KPC)가 공동으로 개발하였습니다.

| 참가기관 |

▶ 산업계



▶ 교육계



▶ 공공기관



▶ 학회



TOPCIT이란?



젊은 아이티어, TOPCIT을 만나다

알쏭달쏭, 아직은 TOPCIT에 대해 궁금한 게 참 많은데요,
'취지는 좋은데 또 다른 스펙 쌓기가 아닌지' 솔직히 걱정도 앞섭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눈을 크게 뜨고 들여다보면
TOPCIT이 개개인을 수치로 평가하고 또 다른 경쟁으로 내모는 장치가 아니라
그동안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느껴왔던 막막함을 해결하고
진단과 처방을 통해 개인의 ICT역량을 더 성장시켜주는 솔루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TOPCIT이란
현장에서 실무를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6가지 역량인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능력,
네트워크 및 보안에 대한 이해 능력, IT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능력,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능력, 프로젝트 관리 능력 중
내가 지닌 강점은 무엇이고 약점은 무엇인지 진단하고 처방하여
학생 스스로 ICT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착한 ICT처방전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 TOPCIT의 특징 |

현장 ICT 인력에게 필요한 역량을 콕~ 집어 진단합니다

- 기업에서 ICT와 관련된 전문적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역량 뿐 아니라 비즈니스와 경영에 대한 이해 수준을 진단합니다.
- 다른 ICT자격에서는 포함되지 않은 ICT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기술적 주제에 대한 소통 능력, 프로젝트 관리능력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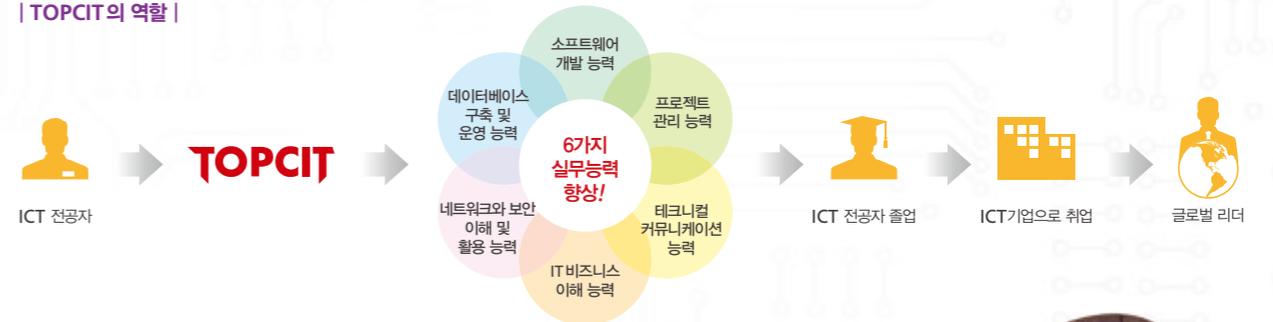
ICT분야의 다양한 영역을 복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한 개인의 역량은 복합적입니다.
- TOPCIT을 통해 다양한 내용을 통합한 문제로 지식·스킬·태도의 총체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과제해결력을 측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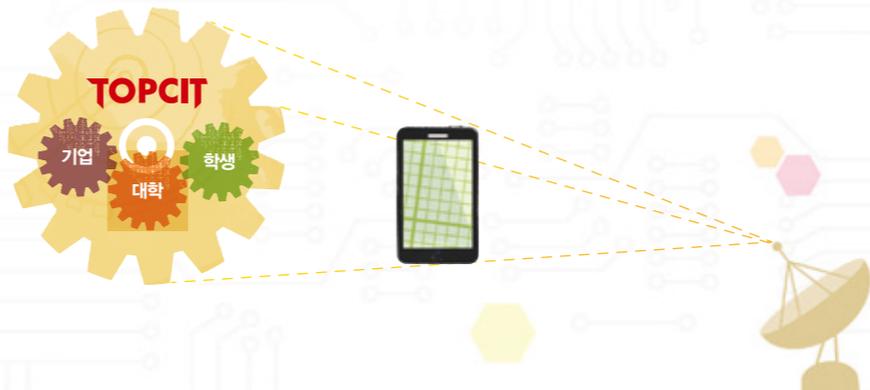
- 21세기 미래형 인재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은 과제해결력입니다.
- TOPCIT을 통해 실제 상황이나 시나리오에서 주어진 이슈나 과제를 잘 이해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어 성과증진에 기여하는 등의 과제해결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 TOPCIT의 역할 |



| TOPCIT의 활용방법 |

- **기업** | 표준화된 ICT역량 평가제도를 활용하여 인재 채용 및 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대학** | 대학과 교육과정의 질적 개선 및 신규 커리큘럼 개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학생** | ICT전공학생의 역량진단을 통한 경력개발·관리, 취업에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기업이 원하는 인재일까?’ 알려주세요! TOPCIT

TOPCIT 경진대회 수상자의 무려 93%가 국내외 주요기업 및 대학원에 취업하거나 진학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이처럼 기업이 요구하는 실무역량을 측정하는 TOPCIT의 점수가 높을수록 기업에서 선호하는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나는 과연 기업이 원하는 실무형 인재일까요? 궁금하다면 TOPCIT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 TOPCIT 문항 예시 |

1 기술은 물론, 실제 프로젝트 운영과 관련한 자신의 지식과 생각을 물어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OPCIT 문항 예시]

객체지향의 특성을 고려해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 1) 객체지향의 대표적인 특성인 '상속성'과 그 장점에 대해 100자 내외로 설명하십시오. (20점)
- 2) [보기]를 읽고 주어진 클래스들 간의 상속관계를 UML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십시오. (30점)

[보기] 위와같은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클래스들은 아래와 같다.

- GameObject : 게임 속에 존재하는 모든 클래스의 최상위 클래스
- Prop : 공간에 배치되는 나무, 돌 등과 같은 사물로 움직일 수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다.
- Camera : 사용자의 화면에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시선이동을 처리한다.
- NPC : 게임 속에서 사용자를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특정위치에 항상 서 있다.
- Monster : 사용자에게는 게임의 위협요소로 작용하며, 이동하다 사용자를 만나면 공격한다.
- Player : 게임 속 사용자의 캐릭터 클래스로 이동하며 게임을 진행해 나간다.
- MovableObject : 화면에 나타나는 오브젝트 중 이동이 가능한 오브젝트를 추상화한다.
- RenderableObject : 화면에 모습이 나타나는 모든 오브젝트를 추상화한다.



| TOPCIT 활용법 |

1 기업의 SW개발자(1년차~3년차 신입직원)에게 필요한 핵심역량 측정이 가능합니다

- 2013년부터 항공SW 우수전문가 확보를 위해 공군에서 정보통신장교 선발시 핵심 자격요건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도 채용시 자격요건으로 반영하는 등 그 활용가능성이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2회 TOPCIT 경진대회 수상자 인터뷰

문형환 | 전남대 전자컴퓨터공학부

Q. TOPCIT이 다른 시험과 차별화된 점은 무엇인가요?

A. 대부분의 ICT자격증은 자격증에 의한 변별력이 떨어져고 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없으면 손해지만 따로 별로 쓸데가 없는' 자격증이 된 듯 합니다. TOPCIT은 서술형 시험으로써 관련 지식이 있어야만 풀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객관적인 ICT역량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시험인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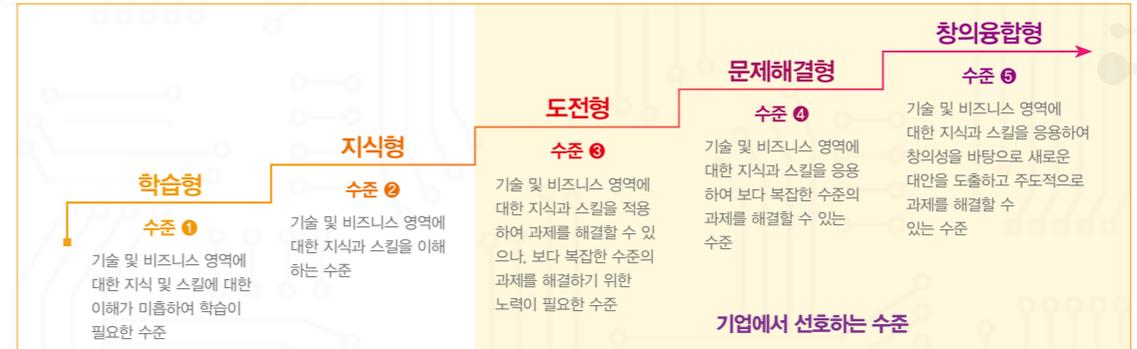


TOPCIT 활용기업·대학 및 기관 네오위즈게임즈, 더존IT그룹, 동부CNI, 롯데정보통신, 벤처기업협회, 삼성SDS, CJ시스템즈, 아시아나HDT, IT여성기업인협회, SK C&C, 엔씨소프트, LG CNS, KT DS, 큐브스, 티켓몬스터, 한국IBM, 한국MS, 한국오라클, 한글과컴퓨터, 한솔인티큐브, 한전KDN, 현대정보기술, 강릉원주대,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국민대, 명지대, 성균관대, 숭실대, 아주대, 안동대, 전북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세종사이버대, 공군, NIPA, 한국정보과학회, 한국정보처리학회, 한국컴퓨터교육학회 등

| 나의 역량수준을 알 수 있는 성적 분석 서비스 제공 |

1 객관적인 역량 수준을 제시합니다

- 기업이 선호하는 수준을 제시하여 개인의 역량파악에 도움을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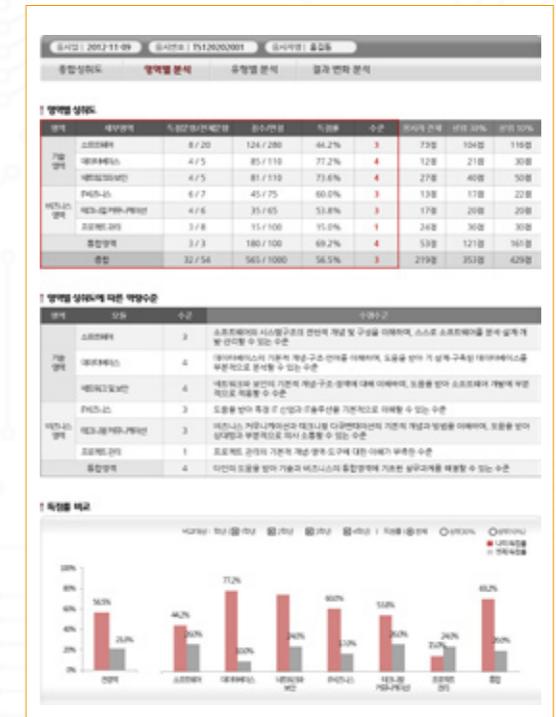
2 개인별 성적 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응시자의 현재 역량수준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개인역량 개발을 위한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성취도 결과 예시]



[영역별 분석 결과 예시]



이러닝 콘텐츠로 TOPCIT 완전정복!

TOPCIT에 도전하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공식홈페이지 www.topcit.or.kr에서

제공하는 이러닝 콘텐츠로 손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샘플문제와 모범답안, 학습콘텐츠 등

TOPCIT 정복에 필요한 모든 콘텐츠는

컴퓨터나 모바일기기를 사용해서 무료로 다 가능하니까

학생들은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TOPCIT을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 이제 아셨죠?

| 이러닝 콘텐츠 학습방법 |

TOPCIT 학습센터 배너를 클릭한 뒤 학습센터에서 수강신청하면 됩니다.

- 학습자 수시 수강신청 가능 : 매월 1일, 16일 개강(사전 수강신청제)

| 이러닝 콘텐츠 특징점 |

학교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현업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사례 중심의 ICT 역량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 현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작업형 문항 및 사례 풀이를 멀티미디어 시연 및 부가설명, NOTE, 학습자 답안 및 의견 공유 등의 기능을 통해 문항내용 이해 뿐 아니라 풀이 방법까지 습득할 수 있도록 제작
- TOPCIT 평가 준비 뿐 아니라, 취업준비, ICT학과 강의 보조자료로 활용 가능

| 이러닝 콘텐츠 활용범 |

TOPCIT 이러닝 콘텐츠는 학교나 기관에서 단체수강이 가능합니다

- 이미 100여개 대학의 대학생, 70여개 ICT 관련 기업의 재직자 등 총 5,000여 명이 수강

실제로 국내 ICT기업에서 신입사원 교육의 기초과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TOPCIT 이러닝 콘텐츠는 취업을 앞둔 대학생 뿐 아니라 ICT 분야의 사회 초년생들의 현업 실무 기초과정으로 활용 (기업체 신입사원이 총 교육생의 70% 차지)

| 이러닝 콘텐츠 강사 및 커리큘럼 |

1 국내 최고의 ICT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사례중심의 강의로 흥미롭게 실무감각을 키워줍니다

이러닝 콘텐츠 강사 및 커리큘럼

• TOPCIT 기초과정 | 신입사원 교육콘텐츠로 추천

영역	역량	과정	차시 수	강사
TOPCIT 가이드	-	TOPCIT 인사이트	2차시	정재훈 책임(NIPA) / 김지심 팀장(KPC)
기술영역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7차시	권오성 실장(IBM)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7차시	이춘식 대표(CSLEE 컨설팅, 기술사)
	네트워크와 보안	네트워크	4차시	채명희 차장(kt, 기술사)
비즈니스 영역	IT비즈니스	IT 비즈니스의 이해	2차시	허중오 책임 외(삼성전자, 기술사)
		IT 비즈니스의 활용	2차시	정사무엘 부장(LG CNS 엔트루 컨설팅)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기본	2차시	김지현 이사(Daum 전략기획 부문)
		테크니컬 다큐멘테이션	2차시	박성혁 이사(델로이트 컨설팅)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관리	6차시	강정배 팀장(티켓몬스터, 기술사)

*한국IBM, 동부CNI 등 기업의 신입사원 교육자료로 활용

• TOPCIT 심화과정 | 재직자 심화교육 콘텐츠로 추천

구분	과정	차시 수	강사
SW	Embedded Software for Life-Critical Applications	20차시	Prof. Insup Lee (University of Pennsylvania)
SoC	Advanced System-on-Chip(SoC) Design Methodologies	23차시	Prof. Nikil Dutt (UC Irvine)
Big Data	Hadoop Based Big Data Processing	20차시	CEO. Keeyong Han (Cloudatahop, Inc)
Security	Advanced Topics in Computer Security	18차시	Prof. Dawn Song (UC Berkeley)

• TOPCIT 문항풀이 동영상

- 총 2차시 작업형(유형) 4문항 제공
- 강사 : 국민대 김남규 교수, 네오위즈 기술연구소 류정수 소장

[이러닝 과정 화면 예시]



이러닝 과정 화면예시 1



이러닝 과정 화면예시 2



젊은 아이티어의 꿈 TOPCIT으로 이룬다

자타공인 번쩍이는 이 두뇌를

아낌없이 TOPCIT에 던져보기로 결심한 당신.

하지만 여전히 의문들은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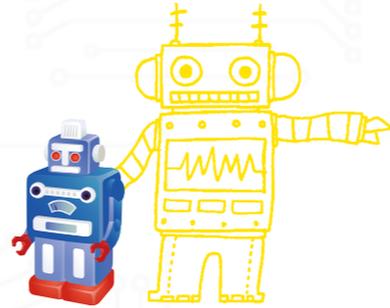
‘누가 출제하고 누가 채점하는지?’

‘어디서 정보를 얻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준비했다!

TOPCIT 11문 11답!



→ TOPCIT이 뭔가요?

TOPCIT(Test of Practical Competency in IT)은 ICT 전공자 및 산업 종사자가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요구사항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하는데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핵심 지식·스킬·태도의 종합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IT역량지수입니다.

→ TOPCIT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테스트인가요?

TOPCIT은 ICT 관련 분야로 진입하려는 모든 예비 인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학생들이 TOPCIT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면?

ICT산업 분야는 다양한 업종이나 직무 특성만큼이나 각 분야별로 요구되는 역량이 서로 다릅니다. 때문에 많은 ICT전공자들이 구체적인 진로나 직업을 결정하기 전에 여러 분야의 역량을 높여야하는 현실에 직면하지요. TOPCIT은 ICT산업 분야나 직무에 상관없이 ICT를 전공한 인재들이 갖춰야 할 역량을 측정합니다. 따라서 ICT산업 분야에 진출을 희망하는 인재들은 TOPCIT으로 개인의 역량을 진단 및 향상시켜 경력개발 및 관리에 활용하고 이를 취업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또 다른 스펙 쌓기 아닌가요?

현재 ICT전공자들의 전공역량은 대부분 학과성적, 경력 및 포트폴리오, 교수 추천서 등에 의존해 평가되고 있어 객관적 입증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ICT인력의 전공능력에 대한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TOPCIT은 또 다른 자격이라기보다 전공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지표로써 ICT전공자와 기업이 서로 신뢰 할 수 있는 취업과 채용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 TOPCIT 점수가 ICT산업분야 취업에 도움이 되나요?

미래창조과학부는 ICT기업의 채용·교육 도구로 TOPCIT이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업과 협약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많은 기업들이 ICT인력을 선발할 때 TOPCIT 점수를 자연스럽게 요구하게 될 것이며, 응시자들이 보유한 TOPCIT 점수는 ICT산업분야 취업에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입니다.

→ TOPCIT이 기존의 다른 ICT자격시험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TOPCIT은 단편적인 지식과 기술을 측정하는 기존의 자격시험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총체적 역량을 발휘하여 해결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수행형 테스트입니다. 객관식, 단답식, 서술식 등 기존의 평가 방식과 함께 실무 상황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다양한 내용이 결합된 문제가 함께 출제되지요. 때문에 기존 대부분의 자격시험은 학교나 학원에서 배운 지식과 기출문제만으로도 학습이 가능하지만 TOPCIT은 탄탄한 기본 지식은 물론 프로젝트나 인턴십 등을 통해 직접 현장에서 체험한 과제 해결 능력도 주요 평가 항목이 됩니다.

→ 이미 실시되고 있는 공학교육인증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공학교육인증은 11개의 학습성과를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인증된 교육과정을 수강하도록 하고 자율적 평가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성과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공학교육인증 교육과정을 수강한 학생들은 TOPCIT에 응시해 보다 객관적인 지표로 개인의 ICT역량을 진단·평가할 수 있으며 또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성과를 분석함으로써 공학교육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 대학에서 TOPCIT을 교과과정에 반영할 예정인가요?

대학교에서는 TOPCIT을 통해 재학생의 ICT역량 수준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교육성과를 측정하고 질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대학 교육과정의 개편이 필요한 경우 TOPCIT의 출제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TOPCIT으로 산·관·학의 밀접한 협력체제를 촉진하여 보다 개방적이고 실무지향적인 대학교육을 기대합니다.

→ TOPCIT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교육이 필요한가요?

사교육을 지양하는 TOPCIT의 방침에 따라 응시생들은 무료로 제공되는 온라인 학습 콘텐츠로 TOPCIT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강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 자원도 제공될 예정이므로, 대학 교육이 실무 중심 교육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기업에서는 TOPCIT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기업에서는 원하는 ICT인재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대학 졸업생을 채용해도 신규직원으로서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ICT산업계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때문에 많은 ICT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지필시험, 면접시험을 출제하거나 신규직원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유·무형의 비용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TOPCIT이 ICT인재들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자리매김하면 기업은 채용 및 재교육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특히 인재 선발 및 교육 체계가 미흡한 중견기업의 인적자원 개발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TOPCIT의 문제는 누가 출제하고 평가하나요?

출제·감수위원회와 채점위원회는 ICT관련학과의 교수, 10년 이상 경력의 현업 실무자, 평가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제·감수위원회에서는 매년 문제를 출제하고 수정·보완하구요, 제출된 답안 중 객관식 답안은 자동 채점되고, 주관식과 작업형은 채점위원회에서 선발된 3명의 채점위원이 채점하여 채점시간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 알고 싶어요~ TOPCIT!

TOPCIT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면 www.topcit.or.kr을 참고하세요. TOPCIT 홈페이지에서는 TOPCIT 온라인 콘텐츠 등 학생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아이티어 ITier 꿈의 영토를 넓히다

미래의 스티브 잡스, 빌게이츠, 마크 주거버그 여러분,
이제 안심하고 꿈의 날개를 펼치세요.
여러분의 꿈이 바로 글로벌 ICT의 꿈입니다.

여러분의 꿈이 건강하게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맨파워로 무장한 대한민국 ICT가 진정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TOPCIT이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TOPCIT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능력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

네트워크와
보안 이해 능력

TOPCIT

IT비즈니스
이해 능력

테크니컬
커뮤니케이션
능력

프로젝트
관리 능력